

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

협회지 제 47-1호 2003년 1월 16일(목)

제목1 : 농가 정책자금 이자경감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 연 3%서 1.5% 인하 협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축산물, 농산물 등 전문성에 근거한 안전관리기능 수행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 '농림부'를 '식품농림부'로 부처 명칭을 개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농업을 단순히 키우고 재배하는 것에서 도축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의 애그리비즈니스 개념을 담은 조직으로 개편,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특히 농축산물이 식품의 핵심인 만큼 생산부서에서 담당하되 식품의 업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부처 명칭 개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16대 대선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식품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은 정부조직명칭 개칭에 검토에 따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음도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인수위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영농(양축)자금 등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고, 이자를 연 3%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재경부, 기획예산처, 농림부 등 관련부처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자경감 방안을 협의토록 권고키로 했다는 것이다.

발체 : 축산신문

제목2: 양돈농가 늘면서 돼지 900만두 유지

-농림부 12월 1일 기준-

그 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양돈농가가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돼지 사육두수도 900만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농림부는 12월 1일 현재 돼지 사육두수는 897만4천마리로 2001년년 같은 기간 872만마리보다 2.9%가 늘었으나 3개월전 903만3천두에 비해 0.7%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모든 마릿수는 95만5천마리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고 9월보다는 1천마리(0.1%) 감소했다.

월령별 마릿수를 보면 2개월미만과 2~4개월령은 각각 268만2천마리, 294만마리로 2001년 동기대비 3.4%, 1.8% 각각 증가한 반면 석달전인 9월보다 2.5%, 0.5%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반대로 4~6개월령 234만7천마리, 6~8개월령 8만두로 3개월전보다 1%, 9.6%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8개월이상 92만5천마리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 두수를 보면 1천두 미만은 259만마리로 전년동기대비 10.4%, 지난 9월보다 4.3%가 각각 감소했으나 1천~5천마리 490만2천마리로 각각 8.6%, 0.6% 5천마리이상은 148만2천두로 각각 12.4%, 1.9%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수는 1만7천440호로 전년 12월 대비 10.7%가 줄었으나 3개월전보다 3%가 늘은 가운데 1천두 미만 농가는 2001년 12월에 비해 13.8%가 감소한 반면 3개월전보다 3.4%가 많아진 1만4천490호로 집계됐고 1천~5천마리 농가는 각각 7.3%, 1.1% 증가한 2천780호, 5천두 이상은 170호로 각각 21.4%, 6.3%가 늘어났다.

한편 농가당 사육두수는 514두로 일년전 같은 기간대비 68.2마리가 늘어났으나 3개월전보다는 19마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발체: 양돈타임스

한국 축산물 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47-2호 2003년 1월 16일(목)

제목3: 경찰청, 설전후 물가 특별단속

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 설전후 물가저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및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판매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하자있는 재료를 사용한 불량식품제조·판매행위, 선물용 유명제품 및 건강식품 등의 불법제조·판매, 폭리 목적 매점매석행위, 담합을 통한 가격조정행위 등이다.

경찰청은 “농수축산물 부정유통사범이나 물가저해사범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및 중간유통업자들의 제보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발체: 한국정보문화

제목4: 축단협 대표자 회의, 경마공원내 회관 건립, 축산단체 입주토록

-축단협 대표자 회의, "경마공원내 회관 건립, 축산단체 입주토록"-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건태)는 신축산회관 건립과 관련, 마사회가 과천소재 경마공원내에 마사회관을 건립하고 축산관련단체들이 입주하는 방안을 마사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단협은 지난 8일 과천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2003년도 제1차 대표자 회의를 갖고 신축산회관 건립 등에 관해 논의하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신축산회관건립이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과천 소재의 경마공원 내에 마사회관을 건립, 축산단체들이 입주하는 방안을 마사회에 적극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축단협측은 “최근 신축산회관 건축부지로 국유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국유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면서 일본처럼 마사회관을 건립, 축산단체들이 입주하게 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관련단체들의 입주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과거같이 타부처 마사회 이관에 대한 논란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발체: 한국농어민신문

-어제(15일)오후 7시 축단협은 호텔 센트로에 정명채 대통령인수위원회와 석찬을 같이하며 축산발전을 위한 대통령에 건의 및 농,축산에 대한 차기정부의 밑그림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협회지에 자세히 게재하겠습니다.

제목5: 농림부, 새 축산정책과장에 최형규씨

-최형규 농업기계기자재과장이 축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신임 최형규 축정과장은 강원 횡성출신으로 배재고, 고려대 농대를 나와 행정고시 25회에 합격했으며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일본사이타마대에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최 과장은 지난 82년 농림부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기획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 축산물유통과장, 농촌인력과장,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92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발체: 축산신문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한국축산물가공처리협회

협회 구좌 : 농협 군포 남지점 : 장환달 1104 - 02 - 043981